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3월

선교편지 제 87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의 2월 25일은 의미가 매우 깊은 날입니다. 30년전, 온 국민이 참여한 비폭력 시위로 당시의 대통령 이었던 마르코스 (Ferdinand Marcos)의 21년간의 독재정치를 종식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삼엄한 계엄령 가운데 철권 정치를 했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민들의 평화적 저항에 의해 하와이로 망명을 떠남으로 인하여, 마침내 온 국민이 열망하던 민주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날을 'People Power Day'로 기념하며 그 당시의 부패와 독재를 반복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5일의 분위기는 그 여느 때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6년마다 치루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잊혀졌던 마르코스의 그림자가 또 다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86년, 마르코스와 그의 전가족이 하와이로 망명을 떠날 때, 그들의 부패의 민낯이 필리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시 해외로 빼 돌린 부정축재 재산이 100억불 가까이 되고, 대통령 부인인 이멜다가 소유한 구두가 3,000 켤레가 넘고, 보석류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재산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마르코스가 하와이에서 사망한 이후 별다른 처벌이나 평가 없이 전 가족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르코스의 독재 시절은 점점 잊혀지고, 이멜다의 부귀만이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마치 한편의 소설과 같은 옛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30여년간 마르코스의 가족들은 물 밑에서 꾸준히 권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둔 금년에 공적으로 모든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부인 이멜다는 지방의 하원의원으로, 큰 딸은 주지자로, 그리고 아들은 상원의원으로 세력을 키워 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권력을 되찾기 위하여 대권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 가고 있는 중에, 마침내 금년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마르코스의 아들이 '부통령'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멜다는 아들이 대통령으로 출마 하기 원했다고 하는데, 최근 여론 조사에 1위를 차지하며 차차기에는 대통령까지 바라 볼 정도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0~40여년전 마르코스의 독재로 인하여 수만명이 고문을 당하고, 수천명이 살해를 당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부패와 가난과 정세 불안등으로 인하여 '지금보다 마르코스 시절이 훨씬 더 나았다.' 또는 '당시가 필리핀의 황금기였다.' 라는 여론이 선거와 연대하여 서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울 좋은 '민주화'가 아니라, 강력하고 안전한 필리핀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많은 후보들 가운데 4명의 선두 그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 '빈곤 탈출', '부패 척결', '강력 범죄 근절' 및 '정세 안정'등일 정도로 현재 필리핀의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특히 '징벌자 (Punisher)'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의 '두테르테 (Rodrigo Duterte)'라는 대통령 후보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민다나오내의 다바오 시장으로서 부정 부패를 포함한 각종 범죄 소탕을 공약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 범죄자들을 6개월 안에 모두 극형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다바오에서 시장이 직접 중범자를 총살 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민다나오의 이슬람 반군도 예전보다 더 빈번한 공격으로 인하여 정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예배 중에 교회를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교인들이 자체 방어를 위하여 직접 무장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검문 검색이 더욱 더 강화되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늘어 나고, 도로변에 장갑차들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필리핀 내에서 한인들의 피살 소식이 증가하고,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테러위협이 고조됨으로 인하여 민다나오 지역을 '여행금지' 및 '특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문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소재 미국 대사관은 3월을 기해서 '최상위 경계령 (High level of Vigilance)'을 발효하고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마치 태풍 중앙의 고요처럼, 조만간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이곳을 덮어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거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 29:8)

 디고스는 28개의 행정 구역 (Barangay)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디고스 예일 교회는 '띠구만'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띠구만은 주변의 마띠, 익핏, 드레스디마요 및 산미구엘이라는 지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나나 농장과 벼 농사에 관계를 하고 있고, 지역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띠 지역에는 지역의 유지가 대학 설립을 위하여 넓은 면적의 땅을 교육부에 오래전에 기증하여 스파마스트 대학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 일년 내내 무덥고, 임야와 농지로 흩어진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동네를 배회하는 것보다, 지역 내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400~500 명의 학생들을 한번에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학부모들까지도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고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선교 대상으로 선정한 그룹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가능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는 대화는 물론이고 노래, 율동, 미술등과 같은 섬세한 별도의 활동등이 동반되어야 하는 어린이 사역은 저희들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눈에 띄는 인근 초등학교들을 아쉽게도 그냥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띠 지역에 있는 마띠 고등학교와 스파마스트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대로 주변의 각 학교들을 방문하여 신앙으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학교 책임자들 및 선생님들과 공감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띠 지역의 학원 사역을 기반으로 마침내 인근 띠구만 지역에 디고스 예일 교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마치 집이 없어서 오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중에, 아름다운 집을 장만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일년여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축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제는 완공된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디고스 예일 교회는 지역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디고스 지역의 복음화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센터'의 꿈을 품고 기도하며 건축 하였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의 선교의 교두보로서 띠구만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인근 지역에도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도 지난 일년간 인근 지역의 학교들을 꾸준히 방문하여 학교의 책임자와 교사들과 학생들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길을 모색해 왔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년에 방문한 단기 선교팀의 영향을 덧입어서,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익핏 고등학교 내에서 약 4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띠 지역의 스파마스트 대학내에 새로운 대학생 그룹을 형성하여 30여명의 학생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생각은 간절했으나 역부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내의 어린이 사역을 거의 감당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디고스 예일 교회에 5명의 신학생들이 교육 전도사로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됨에따라, 매주 토요일마다 '익핏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익핏 지역의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 못하지만, 작년 단기 선교팀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리어 저희들을 기억하고 아무런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까닭에 아주 수월하고, 즐겁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디고스 지역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미치기도 전에 '이단 세력'들이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토착 이단 세력까지 디고스 지역의 구석 구석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농장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인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익핏 지역에도, 최근에 원치 않는 이단 세력이 모습을 드러내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단 세력이 먼저 들어와 악한 미혹의 영으로 주민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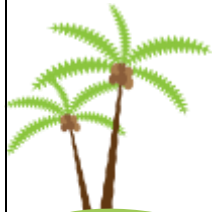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욱 더 디고스 지역 복음화에 서둘러서 수고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이 엄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3)**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익핏 지역의 어린이 사역과 복음화를 위하여
5. 성령 충만, 안전, 건강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